

백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편평사마귀 1 예

문석기 · 김미혜 · 김찬우 · 신동훈 · 최종수 · 김기홍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A Case of Verruca Plana Looked Like Vitiligo

Seok Ki Moon, Mi Hye Kim, Chan Woo Kim,
Dong Hoon Shin, Jong Soo Choi, Ki Hong Kim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Abstract —

Verruca plana is caused by human papillomavirus. Clinical features are 2- to 4-mm slightly elevated, flat topped, smooth papules that may be hyperpigmented. They are generally multiple and are grouped on the face and hand dorsum. Children and young adults are primarily affected.

We report a case of verruca plana with vitiligo like lesions in a 6-year-old female patient. She had been treated with topical imiquimod cream and the lesions were getting better.

Key Words: Verruca plana, Vitiligo

서 론

편평사마귀(verruca plana, plane warts)는 human papillomavirus(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¹⁾ 임상 소견상 표면은 칼로 자른 듯이 편평하고 정상 피부보다 조금 솟아 있으며 직경은 1~4 mm 정도이다. 개개의 모양은 대체로 둥글지만 서로 융합되어 불규칙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1,2)} 주로 과색소성 병변으로 나타나고, 얼굴과 손등에 주로 나타난다.³⁾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사마귀양 모반, 편평 태선, 전염성 연속종, 심상성 여드름 등이 있다.²⁾

저자들은 6세 여아서 저색소반으로 발생하여 백반의 양상을 보인 편평사마귀를 경험하고 임상증상이 특이한 예라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환자 : 유 ○ ○ 6세, 여자

주소 : 안면부에 발생한 백색 반

현병력 : 내원 8개월 전에 전두부와 턱에 뾰루지 모양의 피부병변이 발생하였다가 백색 반으로 진행되어, 타 병원에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3개월간 도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소양감 등의 증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과거력 : 특기 사항 없음.

가족력 : 특기 사항 없음.

피부 소견 : 다수의 좁쌀 크기의 백색 반이 산재하거나 군집 또는 융합된 양상으로 이마와 턱에 발생하였으며, 인설을 동반하였다(Fig.1).

신체 검사 소견 : 피부 소견외 특기 사항 없음.

검사실 소견 : 병변 부위에서 시행한 KOH 검사에서 진균 요소가 관찰되지 않았고, 우드 등 검사에서도 병변 부위가 두드러지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 : 과각화증, 극세포증, 표피 상부의 공포화된 세포가 관찰되며, 상부 진피의 혈관 주위에 약간의 림프구 침윤이 있었다

(Fig. 2).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색소의 증가나 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및 경과 : 5% imiquimod(Aladara®) cream 을 도포하여 병변의 색이 정상 피부색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3개월째 경과 관찰 중이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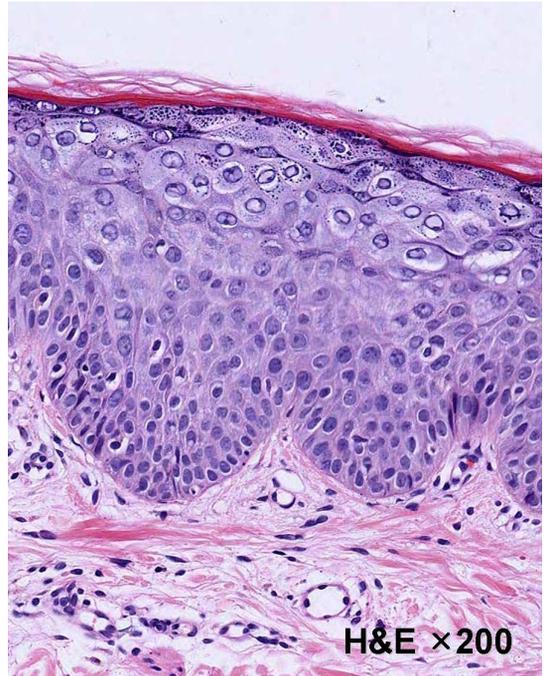


Fig. 2. Hyperkeratosis, acanthosis and numerous vacuolated cells in the epidermis and mild lymphocytic infiltration in the perivascular area of the upper dermis. (H&E ×200)



Fig. 1. Multiple miliary grain-sized hypopigmented macules on the forehead and chin. (A: forehead, B: c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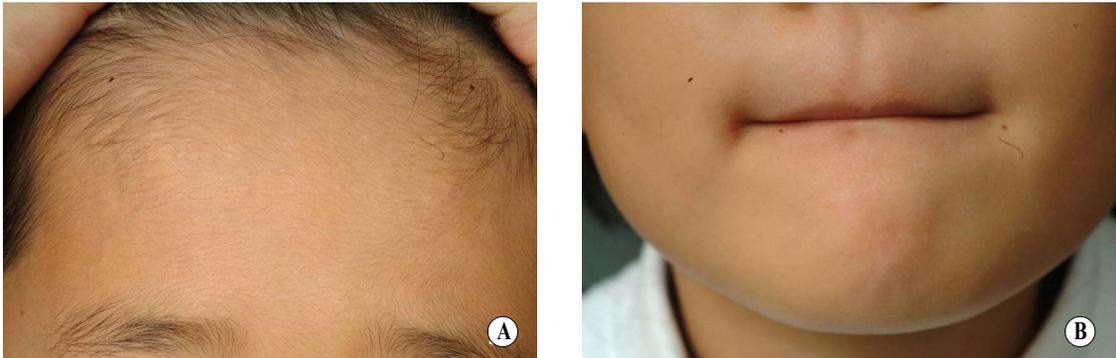


Fig. 3. Skin lesions are improved with topical application of 5% imiquimod cream for 3 months. (A: forehead, B: chin)

고 찰

편평사마귀는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PV 3, 10, 28, 41형에 의해 발생한다.²⁾ 임상 소견상 2~4 mm 크기의 편평한 표면을 가진 구진으로 나타나며, 병변의 색은 홍조, 갈색을 띠거나 과색소성을 보인다. 대개 소아와 30대 전후 성인의 얼굴, 목, 손등, 손목, 팔꿈치와 무릎에 군집되어 나타나며, 전두부, 뺨, 코, 입 주위와 손등에 호발한다. 자가 접촉에 의한 선상 배열을 보이는 약간 융기된 구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1, 2)} 이 증례의 경우 일반적인 편평사마귀가 과색소성의 병변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저색소성의 군집된 반의 병변이 안면부에 나타나 백반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개인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백반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되었다. 백반을 감별하기 위해 우드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병변이 두드러지는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소아에서는 전풍이 얼굴에 발생하면 저색소성 반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을 위해 KOH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사나 포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사마귀로 진단하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바구니모양의 과각화증, 극세포증, 표피능이 약간 연장되는 소견을 보이고, 유두종증이나 이상각화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표피의 상부에서 공포화된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안(bird's eye)세포라고 한다. 드물게 감염된 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공포화된 세포의 핵은 세포의 중심부에 진한 염색질 형태로 존재하며 가끔 핵이 호염기성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과립층은 균등하게 두꺼워진 소견을 보이며 호염기성의 붕입체는 관찰되지 않는다. 진피는 대개 정상 소견을 보인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의 초기 병변은 과각화증, 극세포증, 과립층에 존재하는 공포화된 세포, 해면화, 표피 하부와 진피 상부의 단핵구 침윤이 특징적이다. 후기에는 현저한 이상각화증, 세포 외유출, 각질층까지 침윤한 단핵구, 위성 세포 괴사에 의한 국소적인 수포 형성이 관찰되지만 과립층에는 공포화된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3, 4)} 본 증례에서는 표피의 과각화증, 극세포증, 표피 상부의 공포화된 세포와 상부 진피의

혈관 주위에 약간의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어 편평사마귀로 진단하였다. 이 증례에서 병변이 백반과 유사하게 보이게 된 원인은 유리질의 세포질을 가진 공포화된 세포가 국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공포화된 세포 주위 표피의 중, 하부에도 유리질화 소견이 나타나 병변이 주위 정상 피부보다 저색소성으로 보이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마귀는 자연 소실될 수 있어, 소아의 경우 2/3의 환자에서 2년 이내에 자연 소실된다고 하였다.⁵⁾ 하지만 1/3의 환자에서는 수년간 지속되고 정확한 소실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⁶⁾

현재까지 편평 사마귀의 치료는 국소 화학요법제(salicylic acid, trichloroacetic acid, 5-fluorouracil), 냉동치료, 레이저, 전기 소작술 등을 사용한 파괴요법과 경구 cimetidine 혹은 griseofulvin, DPCP 등을 이용한 contact immunotherapy, 5% imiquimod 크림 등의 다양한 비파괴요법이 사용되나 효과는 다양하다.^{6,7)} 또한 대부분의 치료가 재발률이 높으며, 파괴요법의 경우에는 시술시 통증 및 반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⁷⁾ 이 증례에서는 안면에 다발성으로 발생하였고, 환자의 나이가 어려서 치료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 imiquimod 크

림을 도포하여 병변이 일부 소실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과 관찰 중에 있다.

백반의 양상을 보이는 편평사마귀는 흔하지 않고, 백반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흥미로운 예라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 4판. 서울: 여문각, 2001: 355-8.
2. James WD, Berger TG, Elston DM.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clinical dermatology. 10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6: 403-15.
3. Elder DE, Elenitsas R, Johnson BL, Murphy GF. Lever's histopathology of the skin. 9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651-79.
4. 대한피부과학회 피부병리연구위원회. 피부병리학 atlas. 서울: 디자인메카, 2004: 178.
5. Massing AM, Epstein WL. Natural history of warts. Arch Dermatol 1963; 87: 306-10.
6. Grussendorf-Conen EI, Jacobs S. Efficacy of imiquimod 5% cream in the treatment of recalcitrant warts in children. Pediatr Dermatol 2002; 19: 263-6.
7. 김문범, 고희창, 장봉석 등. 편평사마귀에 대한 5% Imiquimod 크림의 치료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 43: 643-9.